

September 24, 2006

dongA.com

박근혜 벨기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위무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가 24일(현지시각) 벨기에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헌화하고, 참전용사였던 전 국방장관의 미망인을 위문하는 것으로 대표직 사퇴후 첫 해외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벨기에 북동쪽에 위치한 리에주를 찾아 모로 드 멜렌 전 국방장관의 미망인인 자클린 드 라렝 여사(95)를 위문했다.

지난 2002년 별세한 멜렌 전 장관은 1950년 한국전 당시 국방장관이자 상원의원 신분으로 물자만 지원하려 했던 벨기에 정부 방침에 강력히 항의해 파병에 기여했으며, 의원은 파병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된 법령까지 개정해 한국전에 참전했던 일화가 밝혀져 박 전 대표의 관심을 끌게 됐다.

그는 회고록에서 2차대전 당시 벨기에가 미국의 도움으로 나치 독일로부터 해방된 빛을 갖는 취지에서 한국전에 참전해 미국을 도와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참전강행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자클린 여사는 "(남편이) 50세의 나이에 장관직을 그만두고 참전한 것이어서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였다"면서 "한국전에 참전하기 위해 공수부대에서 몇달동안 훈련도 받았으며, 임진강 전투에서 전공도 세웠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9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이 너무 좋고 말도 잘해 박 전대표를 놀라게 한 자클린 여사는 "한국이 세계 11위 경제 강국이 된 것도 그러한 희생과 도움 때문으로 감사드린다"는 박 전대표의 말을 받아 "한국은 번영했는데 북한은 잠잠해 졌느냐"고 묻는 재치도 보였다.

박 전대표는 "6.25 전쟁은 종전된 것이 아니라 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중이며, 현재 북한과는 핵문제로 대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멜렌 전 장관과 같은 한국전 참전의 숨은 영웅들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자클린 여사는 최근 모로코에서 EU 대표부 1등서기관으로 재직하던 외손녀 부부가 자택을 침입한 강도에 피살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표의 방문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박 전대표측이 전했다.

앞서 박 전대표는 오전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탑을 찾아 헌화하고 반 카우베라르트 참전용사회 회장 등 참전용사 대표들과 덕담을 나눴다.

September 24, 2006**dongA.com**

Übersetzung

Park Geun-hye ehrt Gefallene des Koreakriegs in Belgien

Die ehemalige Parteivorsitzende Park Geun-hye besuchte die Memorialstatue für die Gefallenen des Koreakriegs in Belgien und traf die Witwe des ehemaligen belgischen Verteidigungsministers, der im Koreakrieg auf Seiten Südkoreas gekämpft hatte. Ihm, der zur damaligen Zeit Abgeordneter gewesen war, wurde von der belgischen Regierung eine Teilnahme am Kriegsgeschehen ursprünglich verweigert, da Abgeordnete prinzipiell nicht an Kriegen teilnehmen dürfen. Er hatte sich entschieden dagegen gewehrt und konnte letztlich doch partizipieren. Dies war Frau Park bekannt und sie bedankte sich bei der Witwe mit der Feststellung, dass der Wohlstand Koreas Kriegsteilnehmern wie ihm zu verdanken sei.